

“윈 스톱 서비스로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관음원, 부산에 ‘무량수 요양원’ 착공



8월 27일 착공식에 들어간 무량수 요양원 조감도.

22년간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왔던 선래 스님(사회복지법인 관음원 이사장)이 이제 노인복지에까지 눈길을 돌렸다. 7년 전 환갑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관음원

을 설립한 스님은 8월 27일 부산 동래구 언천동에서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 노인요양시설 ‘무량수 요양원’ 착공식을 가졌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내년 3월경 완공 예정인 무량수 요양원은 노년을 부처님 품안에서 영양하며 보낼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돌아가신 후에는 천도재까지 책임지는 윈 스톱

79세 성공 스님 땅 보시 무료로 사후 천도재까지 물리치료실 주민들에 개방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펼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인 성공 스님(세수 79)이 평생의 원력을 담아 집을 짓기 위해 마련했던 땅 6백여 평을 5년전 선래 스님에게 내놓았고 선래 스님은 이 땅을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해 무량수 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무량수 요양원은 604평의 대지에 연건평 333평 지상 4층 건물로 노인진료센터, 물리치료실,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침대용 승강기 등 최고의 시설과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문을 열게 된다.

이 밖에도 증병로 취사, 여가 생활 등 소규모 그룹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동생활 공간을 설계해 입소자들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물리치료실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돼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향후에는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법인으로 활동하며 동래구 관내의 결손 가정에 매년 1천여만 원의 장학금 지급과 경로잔치를 열어온 사회복지법인 관음원은 앞으로 무량수 요양원에 인접한 관음사부지에 치매요양시설과 법당을 갖춘 현대식 건물을 새롭게 건립,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관음원 이사장 선래 스님은 “무량수 요양원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바탕으로 동래 지역의 노인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시설이자 어르신들이 기도 정진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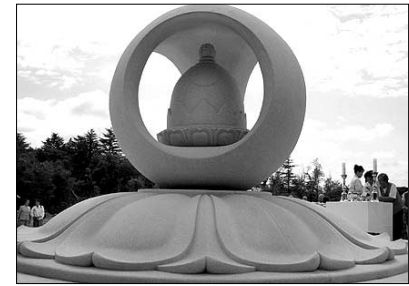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ews.com



성림당 월산대종사 부도탑 제막식이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앞줄 맨 왼쪽),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가운데) 등 1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큰 가르침 증생의 이정표”

월산 대종사 8주기, 부도탑 8일 제막식



동국대 홍광표 교수 설계 비문 고은·글씨 정병철시

前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성림당 월산 대종사의 부도탑이 열반한 지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국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 세워진 부도탑은 총 높이 4.5m

로, 전통적인 석종형 부도 3면에 구멍이 뚫고 그 안에 지름 1.65m의 원구를 안치했다. 지름 6.5m 연화좌대와 9m 길이

의 정방형 좌대가 그 밑을 받치고 있다. 동국대 홍광표 교수가 설계한 이 부도탑은 1999년 문중 스님들과 문도 문화재위원들의 발의로 착공했으며, 사리함은 경주 금오산방의 최광웅 거사가 3년동안 제작하여 2003년에 봉안했다.

또 행적비의 비문은 고은·글씨는 윤포 정병철 선생이 썼다.

9월 8일, 월산 대종사의 열반 8주기를 맞아 봉행된 제막식에는 문중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포교원·교육원 임원들과 종회의장 법등 스님, 종회의원·본사주지 등 500여명의 스

님과 800여명의 재가불자가 자리했다. 무설전에서 진행된 1부 법요식은 현향 현화, 죽비9배, 회주 성타 스님 인사, 주지 종상 스님의 경과보고,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의 경모사, 총무원장 법장 스님(총무부장 현고 대덕), 이의근 경복도지사(김용대 행정부지사 대독) 백상승 경주지사, 이종근 경주시의회장의 추모사로 이어졌고, 2부 부도탑 제막식으로 회향했다.

글·사진/경주·배지선 기자

은혜사, 봉사단 전문화 된다

동산간호보조학원서 간병교육 복지학부 개설 계획

은혜사 자원봉사단(단장 혜해)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 자원봉사단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은혜사 자원봉사단 중 30명이 지난 7월 1일부터 2달간 동산간호보조학원에서 시행하는 체계적인 간병 교육과 실습을 받고 지난 8월 29일 전원이 전문 간병인 자격증을 받았다. 9월 29일부터는 2기생 30명의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시행될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비해 전문 간병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단장 혜해 스님은 은혜사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학부를

개설해 3급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다 전문화된 자원봉사단으로 키울 포부를 밝혔다.

2003년 발족한 은혜사 자원봉사단은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봉사도 전문성을 갖춰야한다는 인식을 공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미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혜해 스님도 “봉사 교육을 통해 봉사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확립돼야 진정한 ‘자리아타’ 사상을 체현하게 된다”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화사 개원

각원사 울산 포교원 연화사(주지 덕륜)는 9월 3일 해인 스님을 초청 법사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동주 원명 스님을 증령으로 관세음보살 집안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열린 개원법회에는 통도사 전계대회상 해남 스님, 각원사 불교대학장 대원 스님 등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해인 스님은 법문에서 “불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연화사가 불법을 널리 펴는 교육 도량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다.

내년 개강을 앞두고 있는 연화사 부설 호계불교대학은 10월부터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다. (052)293-5550 천미희 기자

사회복지의 날 행사 풍성

포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난승)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9월 6일은 선린대학에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사회복지 워크숍을, 7일은 포항시장에인복지관 야외광장에서 포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파워업 페스티벌을, 10일은 환호 해맞이 공원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백일장 및 미술대회를 열었다.

포항시사회복지협의회는 포항시사회복지단체와 자원봉사관련 기업, 학교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직능단체로 2000년 출범했으며, 지난3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대표이사 난승 스님이 회장을 맡고 있다.

배지선 기자

관음사 레크리에이션 특강

“여러분은 범죄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율동을 익히겠다는 생각보다는 법회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레크리에이션의 큰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해)는 9월 4일 경주 향림사 법명 스님을 초청 어린이 청소년 지도교사를 위한 불교 레크리에이션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영남불교대학 대구, 경산 철곡의 어린이, 청소년법회 지도교사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실제 동작과 놀이를 통해 레크리에이션의 진행 요령을 익히고, 구체적인 게임을 통해 자료를 모으는 방법까지 교육받은 지도교사들은 레크리에이션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배지선 기자

“사경반 모집합니다”

영남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재원)이 사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함께 수행정진할 사경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경반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대구시 수성구 상동 영남불교문화연구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사경 지도는 계명대 서예과 대학원 출신의 시우 김난영 강사가 담당한다. 회비는 무료. 김재원 원장은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적는 사경은 자신의 원력과 믿음을 한 글자에 담아 신앙의 힘을 키워 나가기에 필요한 소중한 기도”라며 “많은 지역분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053)761-8950 배지선 기자

봉화 축서사 사리 친견법회

봉화 축서사는 9월 4일 2002년 축서사 패불탱 보물지정 과정에서 발견된 희귀한 적사리 2과와 미얀마에서 모셔온 불사리 108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 축서사 주지 무어 스님, 류인회 봉화군수 등 3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무어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축서사 패불탱화에서 부처님 진신 적(赤)사리 2과가 나와 이를 모실 방법을 찾다가 불탑 건립의 원을 세웠고, 그 후 매우 특별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정골 사리 108과를 더 모시게 돼 친견법회를 열게 되었다”며 “귀한 부

처님 진신사리를 축서사에 봉안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대구구도회, 부처님 이운법회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하재웅)가 법당 증축공사 낙성을 맞아 9월 4일 부처님 이운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 교수를 비롯한 재가불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하재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 구도회 설립 30년을 앞두고 법당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법당 마련을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혼탁한 불교계를 밝히는 구도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포교를 ...

대구경북 풍경소리 문화부 발족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지부장 류병규)가 9월 2일 운영위원장 취임식과 함께 문화부 발족식을 가졌다.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대구교도소 교정위원, 홀트 아동복지회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김길희씨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제8기 포교사며, 삼포이교전무 윤전수지인 유희연 씨가 문화부장으로 취임했다.

풍경소리 류병규 지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풍경소리 문화부의 인적 역량을 발휘해 최소한의 실비로 문화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봉사함으로써 지역신도와 사찰간의 화합을 다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053)963-4080 배지선 기자



“천년의 향기를 만난다”

법주사 대웅보전 복원불사 회향 대법회

380년만의 복원 - 그 향기를 다시 만나다

속리산 법주사는 신라고찰로서 553년(진흥왕14년)에 창건되었으며 1624년 벽암대사가 중건한 천년고찰로서 역대 조사의 수행가풍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충북지역의 본사이며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사찰입니다.

이번에 낙성식을 봉행하는 법주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보전은 총 170평에 이르는 2층 목조건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웅장한 불전으로 4년 동안 해체하고 복원 불사를 진행하여 380년만에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낙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봉행하오니 참석하시어 복원불사회향을 봉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사내용
 - 법주사 대웅보전 낙성식 대법회 : 오후 1시
 - 법주사 대웅보전 낙성식 기념 보살계 수계식 : 오후 2시 30분
 - 법주사 대웅보전 낙성식 축하 10만등 점등식 : 오후 7시

※ 보살계 및 10만등 점수 동참 문의: 법주사 종무소 043)543-3615



• 일 시: 불기2549년 10월 7일 (음력9월5일)오후1시 • 장 소: 법주사 대웅보전 •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